

무형유산 가치 담은 문화행사 펼쳐진다

국립무형유산원, 상설테마전 '만정 김소희의 소리 길' ·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무형유산의 가치를 담은 문화행사 2개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상설전시실에서 2023년 상설테마전 '만정(晩汀) 김소희의 소리 길'이 개최된다.

이는 우리 소리의 대중화와 국악 교육의 제도에 기여한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초대 보유자 고(故) 만정 김소희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로, 올해는 1964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가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20주년을 맞은 의미있는 해다.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

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한편,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추후 전시 소개 영상을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유튜브(www.youtube.com/c/국립무형유산원)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10월까지 매월(9월은 제외) 마지막 주 금·토요일에 대공연장에서 '2023년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이 열린다. 미래지향적 무형유산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기획된 공연으로, '너나들이'는 순우리말로 서로 '너', '나'하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뜻한다.

금요일 공연은 오후 7시 30분, 토요일 공연은 오후 4시마다 진행되며, 각 공연별 10일 전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1인 2

매)으로 예약할 수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현장 관람이 어려운 사람은 토요일 공연을 국립무형유산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상설테마전 063-280-1477, 너나들이 공연 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열과 혼이 담긴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제주 교류전' 중견 시각예술작가 공모

전주문화재단, 7월 10일까지 접수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유선)은 오는 7월 10일까지 '2023 시각예술 국내교류지원 - 전주×제주 교류전'에 참여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 연고 중견 시각예술가를 국내 예술계에 소개하고, 문화예술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각예술 국내교류지원사업'으로, 타지역 예술계 진출 기회 마련과 창작 동력 강화를 위해 추진돼 왔다.

지원 대상은 전주 연고의 개인전 5회 이상 전시 이력을 가진 만 45세~만 60세의 중견작가로, 최종 8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작가에게는 작품 임대료 150만 원과 함께 교류 전시, 도록 제작, 전시 홍보 등을 지원하며, 제주 문화예술계와의 교류 기회도 제공된다. 재단 김정경 문예진흥팀장은 "올해로 세 번



2022 시각예술 국내교류지원 '전주×제주 교류' 모습

째를 맞은 이번 교류 전시를 통해 중견 시각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적 영감과 창작활동 동력이 돼 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주 중견작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과는 7월 20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문예진흥팀(063-211-92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부안군 · 전북도립국악원, 30일 '국악콘서트 락' 공연

부안군은 국악콘서트 '락' 공연을 다가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부안군과 전북도립국악원이 주최하는 국악콘서트 '락' 공연은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팀과 함께 우리음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이 국악콘서트는 이 용탁(지휘자), 김태연(노래), 아쟁(황승주) 등 다양한 출연진이 협연하여 다채롭게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 공연은 국악관현악, 관현악을 위한 3중 협주곡, 창과 관현악, 민요연곡, 국악가요, 태평소 협주곡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전통음악의 깊이를 더하고 현대창작음악으로 관현악의 영역을 확장한 종합선물세트처럼 공연이 진행된다.

티켓예매는 티켓링크에서 2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다. 예매티켓 수령은 공연시간 1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출연진과의 협연이 있는 국악콘서트로서 많은 부안군민이 이 콘서트를 관람하여 국악관현악만이 가지고 있는 큰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새롭게 편곡한 국악관현악과 함께 전통음악과 부안군민이 하나 되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군 최북미술관 '부드러운 시선'展

'천' · '바느질' 새로운 오브제 평면회화 · 설치작품 20여점 전시

무주군은 최북미술관 기획전시회 '부드러운 시선'전을 오는 7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보연, 김기나, 김봉화, 이적옥 작가의 '천'과 '바느질'을 사용한 오브제(object)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해 작품에 사용,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 평면회화 및 설치작품 20여점과 만나볼 수 있다.

고보연 작가는 '긴장 완화의 공간, 일상, 치유, 재생, 버려지는 것을 바라보기, 여성'을 주제로 3점의 작품(폐 천, 솜, 바느질)을 선보이고 있으며, 김기나 작가는 형질과 한지에 수묵채색을 입힌 '와유산수-소나무마' 등 5점의 작품에 '누구나 거처하고 싶은 아름다운 심상(心象)의 산수화로 담아내고 싶었다'는 마음을 담았다.

김봉화 작가는 실크와 명주, 모시에 채색과 손바느질로 표현한 작품 7점을 통해 '함께 행운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를 보여준다.

이적옥 작가가 '흐르고 쌓이는 시간에 얼굴을 입혀서 현자들의 고독한 욕망을 담아



보면 어떻게?'하는 심정을 천과 아크릴, 바느질 드로잉으로 표현한 작품 5점도 감상할 수 있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박선옥 과장은 "이번 기획전은 '종이와 빛이 아닌 천'과 '바느질'이라는 새로운 재료와 표현방식으로 탄생시킨 작품들과 조우할 수 있는 기회"라며 "꼭 한 번 오셔서 부드러운 시선에 담긴 다양성과 복합성이 존재하는 현대미술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길"고 전했다.

한편, 최북미술관(무주읍 최북로 15)은 매주 월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단오 맞아 우리놀이 행사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4~25일 이틀간 단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24일에는 전당 1층에서 단오 율놀이 한마당을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온라인 사전접수(<https://naver.me/xpaKvuiJ>)로 신청 가능하다.

이어 25일까지 주말동안 전주한옥마을 내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단오야 놀자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현장 예약제로 운영되며, 1시간씩 4팀까지 입장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1545)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과거 세시풍속들이 시간이 갈수록 잊혀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단오 행사를 통해 단오의 의미와 풍습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대장경문화학교, 완판본 맥 이야기 전통 판각 강좌

대장경문화학교는 2023년 완판본 맥(脈) 이야기 전통 판각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7월 7일 개강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약 두 달간 완판본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전통 판각 실습 중심의 초급반과 고서적 출판 과정인 중급반을 개설해 판각, 인쇄,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전통 판각 강좌' 초급반은 전통 판각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조각도 제작, 음각기본, 음각글자, 양각기본, 양각글자 등 10주간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6~9시

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고서적 출판 과정' 중급반은 전통 판각 강좌 초급반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시민 각수 24명이 판각한 '완판본 천지문' 책판의 교정, 목판 인쇄, 제작 과정으로 수업이 개설된다. 이는 옛 전주의 서점인 '서포'에서의 고서적 출판 과정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준영 관장은 "올해는 판각에 이어 인쇄, 제작까지 아우르는 고서적 출판 과정을 준비했다"며 "강좌 수강을 통해 옛 전주의 서점인 서포에서 이뤄졌던 완판본 출판 과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